

# 공공극장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탐색

—김옥란, 『남산예술센터 관객의 기록 2009\_2020』(연극과인간, 2021)

박미란\*

## 국문초록

『남산예술센터 관객의 기록 2009\_2020』(연극과인간, 2021)은 연극평론가 김옥란이 남산예술센터에서 이루어졌던 공연에 대한 비평을 묶어 낸 평론집이다. 저자는 공공제작극장으로서 남산예술센터가 수행한 선도적 역할과 의미를 그 안에서 이루어진 공연을 통해 가늠해보고자 한다. 이 평론집은 레퍼토리, 깃발효과, 이슈와 키워드, 매체전환 혹은 예술가들의 대화, 국제교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서 작가의 극장, 세월호, 국가검열 등 구체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연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과 키워드를 통해 저자는 남산예술센터의 정체성과 선도성을 짚어내고자 하며, 구체적인 공연 비평에서 다양한 세대의 창작진들이 무대를 통해 보여준 실험성, 깊이 있는 문제의식, 관객과의 만남에 주목한다. 또한 저자는 남산예술센터의 무대에서 창작자들이 보여준 다양한 실험과 상상력을 기민하게 포착함으로써 이 극장의 독특한 무대 구조가 만들어내는 연극적 상상력과 관객의 관극 경험을 짚어내고 한국 연극사에서 남산예술센터가 지녀 온 상징성과 역사성을 탐색한다.

[www.kci.go.kr](http://www.kci.go.kr)

\* 성공회대학교 강사

## 1. 기억하고 기록되어야 할 남산예술센터

남산예술센터가 2020년 12월 31일자로 문을 닫았다. 1962년 4월 12일 개관했던 드라마센터는 원형 무대의 형식을 절충한 473석 규모의 중극장으로 한국 연극의 중흥을 이끌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1년이 채 되지 않아 재정난으로 인해 연극전용극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1964년부터 서울연극학교, 1973년 이후에는 서울예술전문대학(현 서울예술대학교) 학생들의 실습전용무대로 사용되었다. 이 극장이 연극인들의 무대가 된 것은 2009년 9월 서울시 창작공간으로 재개관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가 임대하여 사용하는 동안 남산예술센터는 창작초연 중심의 현대연극 제작극장, 시대의 맥박을 느낄 수 있는 동시대 공연장,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극장을 지향하며 극장만의 색채와 특성을 재정립<sup>1)</sup>해 왔으나 서울시와 학교법인 동량예술원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문을 닫게 되었다.

이 12년의 기간 동안 남산예술센터는 공공극장으로서 총 200편의 공연을 올리며 많은 창작자 및 관객들을 만나 왔다.<sup>2)</sup> 남산예술센터의 활동은 현재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에 구축된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포스터, 프로그램북, 사진 등의 공연 자료를 비롯하여 관객과의 대화, 포럼 등의 문서 자료까지 다양한 자료가 남산예술센터의 12년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아카이브에 그 공연을 보고 즐겼던 관객은 빠져 있다. 이러한 아쉬움 속에서 남산예술센터에서 이루어졌던 공연에 대한 기억을 담아낸 김옥란의 『남산예술센터 관객의 기록 2009\_2020』(연극과인간,

1)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극장 소개(<https://www.nsac.or.kr/intro/introduce>, 검색일자: 2021.12.15.)

2) 2009년부터 2020년 동안 남산예술센터는 창작극 초연 중심 제작극장으로서 총 200편의 작품을 제작하였고, 참여예술가 3,074명, 공동제작 참여극단 119개 단체, 총 관객 263,015명이 함께 해 왔다.(김옥란, 『남산예술센터 관객의 기록 2009\_2020』, 연극과인간, 2021, 6면.)

2021)은 남산예술센터의 무대와 만났던 관객의 감각과 열기를 느낄 수 있어 무척 반가운 책이다.

이 책은 저자의 『행복한 관객, 불행한 비평가』(연극과인간, 2009), 『백도의 무대, 영도의 글쓰기』(연극과인간, 2014)에 이은 세 번째 평론집이다. 이 세 번째 평론집은 앞의 두 평론집과 사뭇 성격이 다르다. 가장 다른 지점은 책의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책이 남산예술센터의 공연을 대상으로 한 평론집이라는 것이다. “남산예술센터가 폐관되었습니다.”(5면)라는 엄중하고도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책의 머리말에서 저자는 “남산예술센터의 시간을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6면)라는 목적을 드러내며 남산예술센터의 역사적 시간을 더듬어볼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처럼 이 평론집은 연극의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남산예술센터의 역할과 가치를 그 안에서 이루어진 공연을 통해 가늠해보고자 한다.

앞선 평론집 『백도의 무대, 영도의 글쓰기』에 대한 이주영의 서평에서 이주영은 저자의 두 평론집이 무대와 글쓰기, 현장과 평단이라는 두 가치를 제목에 나란히 놓고 있으며, 두 번째 평론집에서는 저자의 위치가 관객에서 무대로 이동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이 세 번째 평론집에서 저자의 위치는 다시 관객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한 앞의 두 책이 관객과 비평가들, 무대와 글쓰기를 나란히 두었다면, ‘관객의 기록임을 내세우는 이 책에서 현장과 글쓰기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저자는 공연을 냉철하게 평가하는 연극 평론가로서의 위치보다 남산 중턱의 극장을 기꺼이 찾은, 애정 어린 관객의 위치를 자처하며 공연의 현장을 기록해 나간다. 이것은 앞의 두 평론집의 경우 『객석』, 『연극평론』, 『공연과이론』 등 연극 잡지에 실은 글을 정리하여 수록했던 것과 달리, 이 평론집은 저자가 한 관객으로서 블로그를 통해 써 왔던 글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수록한 것이라는 데서도 드러난다. 지면에 발표된 글을 묶었던 평론집에 비해 이 책은 생생하고 뜨거운 관객의 감각을 한껏 담고 있다.

그렇다고 이 책이 현장에 너무 가깝게 다가간 열기에만 휩싸이는 것은 아니다. 개별 공연에 대한 비평을 통해 남산예술센터의 역사를 탐색하고자 하는 시간적 거리가 눈에 띄기 때문이다. 기록은 사후의 것이다. 책의 구성은 공연이 이루어진 시간 순서에 따르지 않고 남산예술센터의 역할과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남산예술센터라는 한 극장에서 이루어진 공연을 기록하면서 동시대 연극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도 이 책의 미덕이다.

## 2. 공공극장으로서 남산예술센터의 정체성과 선도성

이 평론집은 ‘레퍼토리’, ‘깃발효과’, ‘이슈와 키워드’, ‘매체전환 혹은 예술가들의 대화’, ‘국제교류’, ‘부록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레퍼토리 장의 경우 시기 순서에 따라 9편의 비평글이 자리하고 있으며, 깃발효과 장에서는 드라마터그, 시민참여, 배리어프리의 키워드가, 이슈와 키워드 장에서는 작가의 극장, 세월호, 국가 검열, 미투, 쿼어, 드라마센터 남산예술센터의 키워드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과 키워드에서 남산예술센터의 정체성과 선도성을 짚어내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 저자는 다양한 세대의 창작자들이 무대를 통해 보여준 실험성, 깊이 있는 문제의식, 관객과의 만남에 주목한다.

저자는 각 장 앞의 요약 글을 통해 남산예술센터에서 짚어내고자 하는 지점에 대해 분명하게 강조한다. 먼저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창작극 중심의 제작극장을 표방한 남산예술센터가 ‘작가의 극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저자는 남산예술센터에서 ‘레퍼토리’로 자리를 잡은 시즌 프로그램 작품을, 그 중에서도 특히 초연과 재연이 이루어진 작품을 선택하고 있다.

2011년 <푸르른 날에>의 초연과 5년 연속 공연을 거친 결과인 2015년

<푸르른 날에> 공연, 2015년 <햇빛 샤워> 초연과 2016년 <햇빛 샤워> 재연에 대한 비평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지점과 차이를 읽어 낼 수 있다. 저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인 신파적 연기 양식을 보여주었던 <푸르른 날에>의 초연 이후 배우들이 성장하고 장면의 디테일이 섬세해진 변화 과정이나, <햇빛 샤워>에서 초연의 미진함이 재연에서 해결되며 무게감을 잡아나가는 발전과정을 강조한다. 초연 작품과 재연 작품을 나란히 놓는 방식을 통해 독자로서 공연을 거듭하며 달라진 작품의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작품에 지속적으로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작품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해준 남산예술센터의 중요성이 더욱 와 닿게 된다. 첫 장은 2020년의 마지막 창작극인, 그리고 남산예술센터의 마지막 창작극이기도 한 <왕서개 이야기>에 대한 기록으로 끝나고 있어 남산예술센터에서 더 이상 레퍼토리가 만들어질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짙게 느껴진다.

남산예술센터의 선도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두 번째 장인 ‘깃발효과’이다. 이 장은 드라마터그, 시민참여, 배리어프리라는 세 키워드를 중심으로 개관작 <오늘, 손님 오신다>와 2010년 공동연작 프로젝트, <파란 나라>, <7번 국도>를 싣고 있다. 모두 남산의 선도성과 의욕을 드러내기 위해 손색이 없는 공연들이다.

깃발효과 장에 수록된 작품들은 모두 실험성이 강한 작품이다. 개관작 <오늘, 손님 오신다>는 세 명의 연출가가 협업한 공연으로 남산예술센터의 의욕이 한껏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작품에서 남산예술센터의 의욕적인 시도를 읽어내면서도 세 연출가의 협업이 조화되지 못했던 아쉬움을 지적한다. 또한 ‘한국현대사를 주제로 했던 공동연작 프로젝트에서 극장이라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예술의 공공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남산예술센터의 의지를 읽어낸다.

이밖에 저자는 시민 100명을 무대에 올려 파시즘을 실험한 공연 <파란

나라>와 국내 제작극장 최초로 배리어프리 공연을 이끈 <7번 국도>에 대한 비평을 통해 공공극장 중 남산예술극장이 보여준 선도성을 환기한다. 현재 드라마터그가 국공립극장 및 민간극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시민참여와 배리어프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남산예술센터에서의 실험적인 공연이 지녔던 과급력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슈와 키워드 장에서 다른 작품들은 남산예술센터에서 공연된 작품들의 동시대적 의미와 연극과 사회의 관계, 연극과 정치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들이다. 세월호, 국가검열, 미투, 쿼어 등의 '이슈는 남산예술센터와 여기에서 공연을 했던 창작자들이 단지 현실과 유리된 '순수한 예술가'로서 존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에 대해 발언하고, 역사와 정치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들 공연에 대한 기록을 통해 한국의 현실에서 연극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지면서 개별적인 공연에서 보여준 창작자의 문제의식과 함께 그 '판을 깔아준' 극장의 역할에 주목한다.

특히 국가검열과 미투 운동에 대한 저자의 문제의식이 돋보이는데,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현대사의 굵직한 정치적 현장과 대면하고 있는 <소뿔자르고 주인오기전에 도망가선생>, <치정>, <국부>, <어찌나 어찌다 어찌나> 등의 공연에 대한 비평에서 동시대 연극을 바라보는 저자의 시각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기에서 저자는 최치언의 환상적 글쓰기와 블랙코미디적 면모, 박상현의 치밀한 글쓰기, 전인철의 패러디 등을 읽어내고 그러한 글쓰기가 가져온 공연의 효과 또한 주목하고 있다.

매체전환, 혹은 예술가들의 대화 장과 국제교류 장은 남산예술센터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매체전환 장은 김수영, 공옥진, 사카구치 안고, 프란츠 카프카 등 '인물'을 중심으로 한다. 이 인물들은 작품의 소재가 되어 매체를 넘나들기도 하고, 공옥진과 극단 그린피그의 만남처럼 인물 자체가 매체가 되기도, 사카구치 안고의 작품과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에

대한 다시 쓰기처럼 ‘각색’과 ‘번역’의 과정이 되기도 한다. 이들 작품은 작가와 극단의 상상력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교류장은 토마스 오스터마이어, 타다 준노스케 등 남산예술센터에서 공연한 해외 연출가들의 작업과 베세토 페스티벌, 한중연극교류협회에서 추진한 중국희곡낭독 공연 등 국제적 교류에 주목한다. 해외의 연출가들의 작업은 무대를 구현해낼 수 있는 새로운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중국희곡낭독공연은 우리에게 낯선 감각을 일깨운다. 남산예술센터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매체 간, 국가 간 교류의 현장에 대한 기록은 여전히 남산예술센터의 무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더 많은 고민거리가 있음을, 이 실험의 여정이 끝나지 않아야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 3. 드라마센터의 무대, 남산예술센터의 관객

남산예술센터의 폐관이 아쉬운 것은 이 극장이 단지 서울시에서 운영 하는 다른 공공극장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한국 연극사에서 드라마센터가 지녀 온 상징성과 역사성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극장의 독특한 무대 구조가 만들어내는 연극적 상상력과 관객의 관극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저자는 남산예술센터의 무대에서 창작자들이 어떠한 실험과 상상력을 보여주었는지를 기민하게 포착한다.

저자는 개별 공연들의 무대를 공들여 묘사하는데, 이때 남산예술센터의 극장 구조와 분리될 수 없는 무대 장치와 관극 경험에 주목한다. 예컨대 장강명의 소설을 무대화한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에 대한 비평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무대를 묘사한다.

소설은 어느 날 ‘우주알’을 삼켜버린 한 남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는 이야기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는 ‘우주알-남자’의 시공간

을 표현하기 위해 무대에 경사면의 두 개의 거대한 원형무대를 이어 붙이 거대한 세트를 세웠다. 멀리 객석에서 바라보면 두 개의 달이 뜬 것 같다. 남산예술센터에서만 가능한 무대다.(42면)

두 개의 달, 그리고 남산예술센터의 원형의 객석을 도는 남자의 시선으로 객석까지 포함해서 극장 안에는 세 개의 행성이 돌고 도는 듯하다. 남자는 무대 위의 두 개의 행성 밖에서, 원형의 객석을 돌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우주의 시선에서 무대를 바라보게 한다. (중략) 배우들은 경사진 두 개의 원형 무대에서 스스로 자전(自轉)하듯 제자리를 돌면서 일상적인 행동을 반복하거나, 거대한 공전(公轉) 주기를 그리듯 원형 무대 주위를 빙빙 걸으면서 돈다. 급격한 경사무대는 배우들의 일상적인 동작들을 마치 곧 무너져 내릴 듯한 묘한 긴장감을 바라보게 한다.(44-45면)

이러한 무대 묘사는 “남산예술센터에서만 가능한” 무대의 상상력과 관객이 지닐 수 있는 독특한 시점을 환기시킨다. 이밖에도 저자는 <휴먼 푸가>가 로비 아래쪽에서 무대로 연결된 트랩 통로를 통해 관객을 입장시키고 배우와 관객 모두 무대 위에 있게 한 방식이나, <왕서게 이야기>가 객석의 시선에서 단순한 면 하나의 이미지로만 간결하게 만들어낸 무대를 내려다보게 하여 거대한 유골함과 같은 느낌을 자아낸 방식 등을 짚어내고 있다. 많은 공연과 무대를 보아 왔던 평론가·관객으로서 저자는 대부분의 공연 비평에서 남산예술센터의 독특한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며 흥미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냈는지, 그것이 관객에게 어떤 경험과 감각을 불러일으키는지를 포착한다. 이는 남산예술센터의 무대가 왜 다른 극장으로 대체될 수 없는지, 창작자에게 그리고 관객에게 지속적으로 열려 있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산예술센터의 무대와 관객에 대한 저자의 시선은 ‘지금의 무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관객의 ‘기록입을 의도한 이 책에서 돋보이는 것은

저자의 역사적 시선이다. 저자는 개별 공연 비평에 연출가 및 극단의 작업 경향과 흐름, 작품이 공연된 배경, 다른 연극들과의 관계 등을 설명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연의 맥락과 정보에 대한 각주를 통해 독자가 이 책을 읽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공연의 의미를 되짚을 수 있도록 의도한다. 당시 현장을 뜨겁게 남아내는 비평과 각주를 통해 제공되는 공연에 대한 정보 사이의 거리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남산예술센터 공연의 역사적 발자취를 지금의 독자가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일례로 2015년 <푸르른 날에> 공연에 대한 설명에서 저자는 남산예술센터와 국립극장 등 제작극장 제2기로 들어선 극장들의 활동상을 침언하면서 이 작품이 남산예술센터의 대표적 레퍼터리로 자리를 잡아간 맥락을 짚어준다. 또 <국부>가 공연 의도와 달리 박정희 신화를 이루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착각마저 들었다는 평가(134면)를 하는 부분에서는 공연 당시 이 작품이 박정희 대통령 찬양 목적으로 제작된 작품이라 오인한 관객들이 극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행사를 준비 중인 구미시 관계자들의 관람도 있었다는 흥미로운 사건을 각주로 제시한다. 이밖에 <소뿔 자르고 주인오기전에 도망가선생>에서는 정치의 시대에 대해 언급하며 노무현 전(前) 대통령에 대한 각주나 채동욱 전(前) 검찰총장에 대한 각주 등을 통해 정치사의 한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지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작품과 관련된 안팎의 정보를 제공하는 각주는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뜨거운 현장의 열기에 때로는 거리를 두게 만들고, 공연이 만들어내는 의미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이 책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연에 대한 비평을 엮은 것이지만, 남산예술센터를 바라보는 저자의 시각은 1962년부터 2020년까지의 역사를 전제하고 있다. 그것은 드라마센터의 탄생과 궤적, 그리고 현재의 폐관까지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여기에는 개별 작품을 넘어서 한국의 현대 연극사와 극장사를 통관하는 역사적 맥락에 대한 참조와 평가가 자리

한다.

이러한 저자의 시각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햄릿>을 중심으로 드라마센터의 역사를 바라보는 지점과 ‘드라마센터 남산예술센터라는 키워드를 통해, 그리고 부록을 통해 유치진의 사유화 논란을 정면으로 다루는 지점이다. 저자는 드라마센터의 개관작품이었던 <햄릿>에서 시작하여 이 극장에서 유독 <햄릿> 공연이 자주 올려졌음을 발견한다. 기국서의 <햄릿 6: 삼양동 국화 옆에서>가 그렇고 <남산 도큐멘타>와 <오만한 후손들>도 ‘햄릿’을 소환한다. <오만한 후손들>이 유치진의 망령과 <햄릿>의 선왕의 망령을 겹쳐놓듯이, <햄릿>에 대한 탐색은 단지 셰익스피어의 현대화가 아니라 <햄릿> 공연과 뗄 수 없는, 드라마센터의 역사에 대한 인식과 반성적 사유를 촉발한다.

드라마센터의 사유화 논란이 결국 현재 남산예술센터의 폐관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저자는 공연비평 외 부록에 자리한 「아시아재단 서류를 통해본 드라마센터 지원과 건립과정」을 통해 이 극장의 역사를 정면으로 다룬다. 제1회 공공극장으로서의 드라마센터 정상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발표된 저자의 논문을 요약한 이 글은 드라마센터가 지어지게 된 맥락을 살핌으로써 드라마센터가 공공성을 지닌 극장으로 의도되었고 출발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아시아재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드라마센터가 냉전 네트워크 속에서 록펠러재단, 아시아재단의 지원을 받아 건립된 과정과 이들 재단이 공공성의 목적에서 극장 설립을 지원했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유치진이 애초의 소극장으로 계획되었던 극장을 500석 규모의 중형극장으로 확대하며 록펠러재단의 지원에 차질이 생겼고 사유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저자가 밝혀낸 드라마센터 건립 과정은 다시금 ‘드라마센터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 극장이 공공극장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이유를 주지시킨다.

#### 4. 다시 남산예술센터의 관객이 되기 위해

저자는 마지막에 부록을 배치한다. 부록에는 극장사를 다룬 저서에 흔히 있기 쉬운 공연의 연보가 아닌 인터뷰와 토론회 자료가 자리하고 있다. 극장장 우연과의 인터뷰는 공공제작극장으로서의 가치와 포부를 담아내고 있으며, 「토론회 남산 포럼: 드라마티그 토크 빈 무대, 역할의 빈 공간을 찾는 일」은 공공극장에서 최초로 상주 드라마티그를 둘 정도로 드라마티그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남산예술센터의 역할을, 공개토론회 자료는 드라마센터 사유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이 부록의 세 글은 남산예술센터가 지닌 공공극장으로서의 성격과 가치를 입증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현재진행형의 문제라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아시아재단의 자료가 발굴되어 드라마센터를 둘러싼 맥락이 다시 밝혀지고 있듯이 드라마센터 사유화 문제는 아직 매듭지어진 것이 아니며, 남산예술센터가 활발히 수행하고 있었던 공공제작극장으로서의 역할은 이대로 멈춰져서 안 된다는 것이 부록에 담긴 목소리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책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남산예술센터에서 이루어진 공연에 대한 조명을 통해 이 극장의 가치를 드러낸다. 그것은 동시대의 이슈와 호흡하며 남산예술센터가 해 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해 나가야 할 연극실현실로서의 역할일 것이다. 저자는 이 목적을 남산예술센터의 극장사에 대한 연구로 풀어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관객의 시선에서 개별 공연에 대한 비평을 통해 기록하는 것을 선택했다. 관객의 기록이기에 독자는 이 극장이 제작 주체 및 관객과 만났던 현장의 열기를 보다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으며, 남산예술센터가 공공극장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남산예술센터의 관객이 될 수 있기를, 관객의 기록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해본다.